



군종주보

2018년 6월 3일(제878호) 지극히 기뻐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나 안에 오시는 예수님”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는 매일, 혹은 매주 받아 모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함께 곰곰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해를 받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날은 군인들의 박해를 피해 마을의 가톨릭 신자들이 신부님과 모여 몰래 미사를 봉헌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미사가 집전되고 이제 거양성체를 할 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 두 명이 성체를 들어 올린 신부님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성체를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성체는 땅에 떨어져 군인들의 군화발에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믿는 예수는 어디 있느냐?” 한순간 침묵이 흘렀고, 마을 신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어른이신 분께서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군인들의 발에 짓밟혀 뭉개진 성체를 손으로 정성스럽게 모아 그곳에 모인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성체를 모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노인의 모습을 본 군인들은 머쓱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어디 있느냐?”라는 그 군인의 질문에 조용히 부서진 성체를 모아 서로에게 나누어

준 한 노인의 행동은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짓밟히고 뭉개져 온전한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성체였지만 그 성체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만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빵의 형상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 오늘도 쪼개어지고 갈라집니다. 우리가 성체라고, 거룩한 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매일 우리를 위하여 짓밟히는 수난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고백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삶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심, 또한 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주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오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또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는 주님 닮은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마르 12,22)



홍승호(베드로) 신부
맹호(옥군 수기사)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탈출 24,3-8

회 답 송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제 2 독 시

히브 9,11-15

부 속 기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마르 14,12-16.22-26

영 성 제 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구성열 바르바라



성인명: 구성열 바르바라 (具性悅 Barbara)

신분: 부인, 순교자

활동연도: 1776?-1816년

충청도 홍주의 한내장별(현,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출신인 구성열(具性悅) 바르바라는 본디 성격이 온화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덕행이 남달라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1801년 신유박해 이전에 입교한 그녀는, 첫 남편을 잃고 서석봉 안드레아에게 개가하였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서 과부'라고 불렀다.

구 바르바라 부부는 사위인 최봉한 프란치스코 부부와 함께 교우들이 모여 사는 경상도 청송의 노래산(현,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2리)을 찾아가 그곳 교우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1815년 예수 부활 대축일에 밀고자를 앞세우고 노래산을 습격한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되었다. 체포될 당시에 구 바르바라는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지만 이를 용감하게 이겨 냈다.

경주로 압송되자마자 구 바르바라는 다시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면서 차츰 마음이 약해졌고, 옥으로 돌아와서는 배교할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다. 이때 그녀의 사위인 최 프란치스코가 그녀를 위로하면서 '천주를 위하여 함께 목숨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권면 덕택에 구성열 바르바라는 다시 신앙을 다잡고 어떠한 형벌도 꺾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얼마 안 되어 구 바르바라는 남편과 사위, 그리고 신앙을 고수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감사가 주재하는 대구로 압송되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고, 17개월이 넘게 괴로운 옥중 생활을 해야만 하였다. 그동안 남편과 사위는 형벌 때문에 옥사하고 말았다. 이러한 아픔이 있었음에도 구성열 바르바라는 한결같이 신앙을 증언하면서 모든 고통을 이겨 내었다. 그런 다음 사형 판결을 받고, 1816년 12월 19일(음력 11월 1일) 다른 동료들과 함께 대구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녀의 나이는 약 40세가량이었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빵을 나누어라.

너희는
가서
이 빵을
나누어라.

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상화이야기

최후의 만찬



호인 대 호이네스(1510-1579)
1562년 작, 패널 위 유화 116 X 191 cm
프리도 미술관, 스페인 마드리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자 중 한 명이 당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전통적으로 성체 성혈의 신비는 주로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떼어주시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 그림은 세부 묘사가 훌륭하고 또 매우 아름다운 그림으로, 무게감 있는 깊은 녹색의 커튼이 드리워진 방에, 중앙에 예수님 뒤쪽으로 창문이 나 있고, 그 뒤로 멀리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연풍경이 보인다.

제자들의 머리 위에 후광에는 그들의 이름이 각기 금색으로 적혀 있으며, 제자들의 얼굴의 수염과 머리 카락, 옷자락이나, 옷에 달린 단추들의 세부묘사는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정교하게 되어 있다. 매우 단출하게 차려진 식탁 위에 빵과 소금 그리고 와인이 담긴 병이 보이며, 위로 반사되는 빛이 차가 우면서도 아름답다.

제자들은 이 장면을 모두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기도하는 모습이나, 놀라는 모습 다채로운 표현을

김은혜(필리사넷)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실 위함 미사 - 그리스도의 상제 성혈 대축일: 맵호 현승호 신부

◆ 교구장 동정

- 토성대(3훈비단) 성당 사목방문
 때: 6월 3일(주일)
-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때·곳: 6월 4일(월) 15:00,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JSA성당 기공식
 때·곳: 6월 5일(화) 11:00, JSA 성당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기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어리” (마르 16,15)